



바람이 불어 오는 곳 그곳으로 가 김광석을 불~리보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광주공연
(24~27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그가 떠난 지 18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가 불렀던 수많은 노래를 통해서다. 가객 김광석은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의 노래에 사연 하나 없는 이 없었 거다.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를 소재로 한 최초의 뮤지컬 '바람이 불어 오는 곳'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24~27일(목·금·토) 오후 7시30분, 토·일 오후 3시, 7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눈에 띄는 건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경북) 작품이라는 점이다. 대구 출신 제작자가 대본을 직접 썼고, 대구 출신 뮤지션이 주연을 맡아 대구에서 초연했다. 모든 문화예술이 서울로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작품이 서울 공연을 비롯해 지방 투어까지 진행되는 건 건 의미 있는 행보다.

이 작품은 지난 2012년 대구 페어아트 본도에서 44회 공연되며 첫발을 뒀다. 이후 서울 대학로에서 136회 공연을 갖고 전주, 울산 투어를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74회 공연에 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로만 만들어졌던 뮤지컬 '광화문 연가'처럼 김광석의 노래 역시 잇따라 뮤지컬로 만들어졌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장진과 정유정이라는 스타 연출가와 김준수 박진형 등 스타 배우들의 출연, 막대한 제작

비가 투입된 '그날들', '다셈배'라는 작품의 틈바구니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져 보인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사하고 아름다운 공연'이라는 관객평이 작품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작품은 대학 시절 밴드 활동을 하며 꿈과 사랑, 그리고 우정의 시간을 함께 보낸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팀 '바람' 밴드 멤버들이 주인공이다. 현실에 묻혀 평범하게 살아가던 친구들이 10년 후 다시 모여 콘서트를 갖는 내용이다.

김광석 노래 소재 첫 뮤지컬 '서른 즈음에' 등 20곡 삽입 고향 대구서 제작 서울 입성 전국 274회 공연·관객 7만명

주인공 이풍세역은 대구 출신으로 3장의 음반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박창근씨가 맡았다. 그밖에 황지영·권혁준·임철명씨 등 출연 배우들이 기타, 첼로, 건반 등을 직접 연주하며 라이브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뮤지컬에서는 '나의 노래', '변해가네', '불행아',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등 김광석의 노래와 박창근의 '어느 목

석의 사랑' 등 총 21곡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을 앞두고 지난 13일 광주를 찾은 박창근씨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불렀다.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그의 음색에서는 열릿 열릿 김광석이 느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광석 '처럼' 그 역시 오랜 기간 무대에 서온 포크 뮤지션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김광석 선배하면, 인간의 고뇌와 회한, 웃음 속에 담긴 외로움이 떠오른다"며 "이번 공연이 주위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본과 제작을 맡은 대구 출신 이금구 대표는 2005년부터 김광석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 시나리오를 썼고 2011년 개인 투자로 제작을 시작해 작품을 완성해냈다.

"뮤지컬 김광석이 그랬던 것처럼 매체를 통하지 않고, 어디선가 작은 무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끊이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다. 작품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는 또 "이번 시즌2의 마지막 부분에 콘서트 신을 길게 배치했다"며 "사라져가는 소극장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5만원, 4만원, 1만원. 문의 070-7522-44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광석 노래 20곡을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바람이 불어 오는 곳'



조재호 작 '다완'



박일정 작 '무인도'

광주 분청사기 '소박한 아름다움'에 빠지다

은암미술관 29일까지 분청전

광주 무등산 기슭 효호동 일대에 있는 가마터는 14~17세기 선인들이 이룬 조선시대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가마터 주변에서는 다양한 분청 기법과 명문이 있는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다.

도예가들이 광주 분청사기를 현대적

으로 해석했다. 은암미술관은 17~29일 '소박의 미' 분청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이지현·조재호·송일근·유영대·김락경(이상 광주)씨, 박일정·김두석·박정규·임영주(이상 무안)씨, 박주옥·임용택·손현진·양승진(이상 김해)씨 등이 초대됐다. 광주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한국 분청의 의미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

는 작가들이다. 이들은 전시를 통해 분청사기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상품화 방안을 보여준다. 특히 17일에는 중국 절강대학 주소화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여름밤의 푸른길 인문학 강좌 17·24·31일 남광주푸른길공원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27위... OECD 34개 국 중 오늘날의 한국 모습이다. 객관적 수치가 말해주듯 우리들의 모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암울하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지남하다.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의심만 쌓이는 형국이다.

광주 시민인문학(대표 이승훈)과 사) 푸른길에 한여름밤의 푸른길 인문학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겠다. '숨, 쉬어지십니

까...?!' 주제로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7시) 남광주 푸른길공원(남광주시청 주차장 인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문학을 통해 심신의 평안과 여유를 찾자는 데 목적이 있다. 17일 첫 강의는 명혜영(인문학) 박사의 '도련남'이 기가 막혀-(might is right)', 상식과의 투쟁', 나스메 소세기의 '도련남'을 토대로,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24일에는 심영의(국문학) 박사가 '공

감과 자기에-더불어 사는 지혜'를 주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과 공감의 지평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31일엔 구슬강 시인이 '꽃잎과 분향-불날, 살아남은 꽃들이 필 때마다'를 테마로 슬러져간 어린 생명들의 넋과 슬픔을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 한편 광주 시민인문학은 전남대 비정규교수 학술모임 '무등지성'이 시민과 함께 결성한 학문공동체다. 문의. 010-9949-855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희 넘겨 처음 펴낸 수필집 '하얀 귀밀머리'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장

고희를 넘겨 첫 작품집을 엮어낸 수필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수필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옥주(74) 씨가 첫 수필집 '하얀 귀밀머리'(진실한 사람들)를 냈다. 제목이 상징하듯 이번 수필집은 일상에서 깨닫는 인생의 덧없음과 그림에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생의 송고함을 노래한다. 수필은 인생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

내는 장르다. 생의 성찰과 함께 해학과 비평, 풍자를 아우른다. 황 작가의 글에 내재된 잔잔한 감동은 남다른 체감과 깊이 있는 관조에서 연유한다. '들꽃의 향기', '식영정 달빛', '김삿갓 처방전', '그린 어머니', '고향 집터에서 서서' 등은 서정적 해학이 맞물려 담담한 조화를 선사한다. 발문을 쓴 장정식 수필가는 "그의 작품 세계는 탐구에 의한 지적 요소와 깨달음의 문학적 암시가 향기처럼 피어오

른다"며 "추호의 가식이나 침착이 없는 내면의 진실을 낭만적 감성으로 승화시켜 감동과 재미, 맛을 더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황옥주 수필가는 광주 동 초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국수필에 '발돋움에서 쓴 연애편지'로 등단했고 한국수필작가회 이사를 역임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정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천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형석
011-642-7777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덕유 제 관

급매합니다

매매가격	매물종류	내용
2,600만원	오피스텔	금남로역세권 7층39㎡ 총2,600만원(공실)
4,000	무관리대	금남로가 전향역입구 총16㎡ 유통인구 밀집
6,500	이마트전세	관산구도심중 종로이마트2층75㎡ 내인수가능
3,500	대학가상가	나주 대학원 근방권 주택 대5679㎡
198,600	주택(현역)	서동 주22종이타운 대411㎡ 원형 월척
396,200	명품주택	광주 황대영 빌15 부98,000원396만원포함
397,000	충장문5가 주인세대+원룸17부2,000원510포	
795,000	대인동상업(4500㎡)	점포 30 부1억1000만원포함
497,000	대박가득	영남고속도로변연로1,063㎡ 일매100만원이상
4억	엄청난건물	대인동대교변 상업지 1829㎡ 건물2층
5억	예술거리	최고지 상업지165㎡무인거주4,000원150포
595,000	역세권빌딩	금남로가역입구 대지208㎡ 부3,500원388만원
795,000	역세권빌딩	대인동 상업지271㎡총 부9,000원450포함
14억3,500	역대로코너	금남로가역195㎡2층90㎡ 부1억 8800포함
24억	역대로코너	충장문역 대지10㎡부2,600㎡부2억11,000포함
3천~10억	임야.농장	화순.정선.담양.곡도면 이산.농장 다수 확보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싹뻗습니다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부동산,건강,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하루8,000여명이 북적거리는 정터
여러분들 누구나[무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구합니다
찾는 지역,금액,월세비중이 맞지않아 대기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대부동산이라면 워트) 금액과 지역에 상관 없이 연락주세요 바로 처리하여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사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경매

영광 백수해안도로부근
대지 10,730㎡
펜션부지적합

감정가 5억4300만원
최저가 5억4300만원

신안 증도면
대지 4,858㎡
엘도라도500m거리
펜션부지,계곡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영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재있음
복층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 주원
010-7171-7610